

융복합 시대의 대학생의 이타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장용희, 이재신
충북대학교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Altruistic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Yong-Hee Chang, Jae-Shin Lee
Dep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이타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모형으로는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이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는 세 개의 변인이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서만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 평가한 후 연구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종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의 구조적관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강점은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해서만 이타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대학생집단에 따라서는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에 이르는 경로계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 이타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identity, character strengths, family strengths,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al self has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in turn, and character strengths, have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and moral elevation, self control in turn, and family strengths have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self control.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weights of character strengths and moral elevation.

Key Words : moral identity, character strengths, family strengths, moral elevation, self control, altruistic behavior, gender difference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Received 14 January 2016, Revised 15 Febr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Jae-Shin, Lee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jslee@chungbuk.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1]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윤리적 가치는 연대의식, 형제애, 정의, 타인에 대한 존중이며 이는 시대가 변할지라도 달라질 수 없는 가치다’라고 밝힌 바 있다[2].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함께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이타성과 도덕성과 같은 특성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타성과 도덕성의 함양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주요목표가 되고 있다.

최근 심리학의 한 분야인 긍정심리학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인간의 긍정적인 개인 특성을 발전시키며 행복해지는 것을 강조한다[3]. 이러한 개인적 특성 중의 하나인 이타주의와 이타행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왔다. [4]에 의하면 타인을 위해 자기의 불편을 감내하거나 타인과 경쟁하고 배척하는 행동 대신에 협동적 행동을 하게 되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는 청소년들의 이타주의는 자신만을 중시하는 자기몰입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충족이 삶의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6]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이타주의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수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며, 자신의 행복과 집단의 이익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7]. 이러한 이유로 이타주의 및 이타행동의 발달과 성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타주의 및 이타행동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타행동 동기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8], 이타적 동기[9], 공감[10], 통합교육 경험[11] 등의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과 이타행동에 미치는 배려증진과 장애 이해 프로그램의 효과성[12]을 규명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단순관계와 이타행동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통하여 이타행동의 성격과 그 특성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많은 연구들이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해 오면서 이타행동이 더욱 강조되며 모범을 선보일 수 있는 성인 초기단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타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 변인과의 단순한 관계를 살피기보다는 개인 내적 특성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개인 내적 특성 변인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을 고려하고 외적인 가정 환경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을 포함하면서 이들 여러 변인들과 이타행동과의 전체적인 관계구조와 직접·간접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변인으로서 개인 내적 특성 변인인 도덕적 정체성을 들 수 있다. [13]에 의하면 도덕성이 점차적으로 성격의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이자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 선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4]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은 행위자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 내적 특성변인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이 이타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도덕정체성과 함께 이타행동에 영향을 끼치리라 예측되는 변인으로서 성격강점을 들 수 있다. 성격강점이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과는 달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시켜 주면서 좋은 느낌과 희열감을 나타내는 긍정적 특질인 것으로 간주된다 [15].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성격강점은 6개 핵심특목의 하나인 인간애로서 이는 타인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감정들로 이해되며, 사랑, 친절성, 사회· 정서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17]은 인간애를 통해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성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18], 이타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격강점의 인간에 덕목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과 함께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은 개인 외적 환경 변인의 하나인 가족건강성을 들 수 있다. 가족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을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던 이전의 연구 동향으로부터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을 강화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족관계의 향상과 가족건강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19]. [20]는 가족건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친사회적 성격과 사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방법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이처럼 가족건강성에 관련된 부모의 언어 및 양육행동 요인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자녀들의 이타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한편, 도덕적 정체성 및 성격강점과 가족건강성이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변인들과 이타행동 간에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이라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덕적 고양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미덕의 행위 또는 도덕적 아름다움의 행위에 감명 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덕을 유발하게 되는 동기이며 [22]는 각 개인은 자신이 갖는 도덕적 고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며, 인간애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이타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 역시 도덕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의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정서인 고양이 도덕적 동기로 기능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도덕적 고양과 함께 이타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은 순간적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며 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기도 하다. 자기통제력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9]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24]는

[25]의 4구성요소모델에 해당되는 변인이 어느 경로를 통해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도덕적 행동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도덕적 실행능력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26]는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대학생 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 역시 이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늠케 해준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에 의하면, 남·여간 성별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기에 성별이 따른 차이는 이타행동 연구에 있어 고려할 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28]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10]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정서적 차이가 이타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도덕적 정서인 공감을 중심으로 하위요인 모두에서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학생이 이타행동 및 도움행동에서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이타행동과 관련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로 남·여 대학생 집단 간에 이타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타행동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집단과 여자 대학생 집단 간에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및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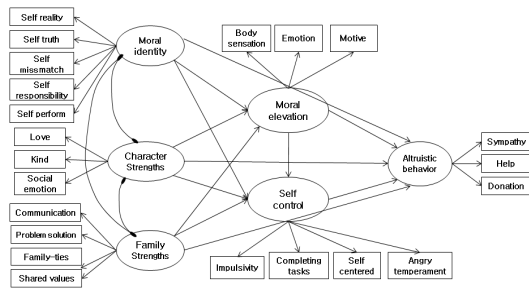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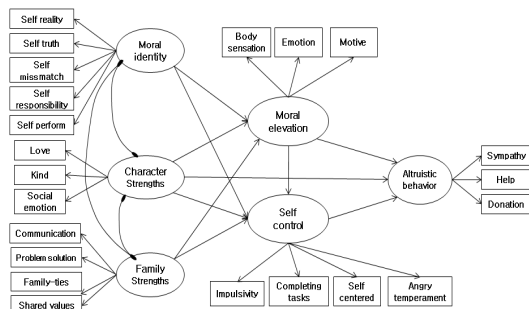
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을 제외한 647명(남자 대학생 312명, 여자 대학생 3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

본 연구는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각 변인의 직접적인 영향과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의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대안모형으로는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의 간접적인 영향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Fig. 1][Fig. 2]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tion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표집된 충청권 지역의 국립 4년제 C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665명으로서 설문지에 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312	1Gr.-157	24.3
		2Gr.-94	14.5
	Female 335	3Gr.-196	30.3
		4Gr.-200	30.9

3.2 측정도구

3.2.1 도덕적 정체성 척도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9]가 번안하여 제작한 도덕적 자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실재성, 자아진실성, 자아불일치성, 자아책임성, 자아수행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3.2.2 성격강점 척도

성격강점의 측정은 [30]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성격강점 척도 중에서 인간에 덕목의 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사랑, 친절, 사회·정서지능의 3개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2이었다.

3.2.3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 및 가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31]의 척도를 수정한 [32]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의 4개 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이었다.

3.2.4 도덕적 고양 척도

도덕적 고양 척도는 [33]가 개발한 척도를 [34]이 수정 보완한 도덕적 미 척도로서, 신체적 감각, 정서반응, 동기 수준의 3개의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

3.2.5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35]의 척도를 참고하여 [35]가 재구성하여 제작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충동성, 과제완수,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의 4개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3.2.6 이타행동 척도

이타행동 척도는 [37]의 도움행동척도를 [38]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한 척도로서 공감, 조력, 증여의 3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집 자료의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χ^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카이사승 검증을 사용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최종모형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검증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중상관계수를 계산하

여 종속변인들이 독립변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을 통해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나타난 각 측정변인의 평균값은 2.57~4.29로, 표준편차 값은 .50~.95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값은 -.892~.446로, 첨도값은 -5.58~.74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moral identity	self reality	3.88	.64	-.250	-.025
	self truth	3.13	.60	.446	.747
	self mismatch	3.51	.50	.204	.500
	self-responsibility	3.75	.57	-.101	.115
	self perform	3.68	.57	-.056	.280
Character Strengths	love	4.29	.58	-.892	.559
	kind	3.85	.54	-.199	-.062
	social-emotion intelligence	3.50	.65	-.130	-.055
Family Strengths	communication	3.65	.72	-.187	-.450
	problem solution	3.93	.69	-.411	-.195
	family-ties	3.94	.74	-.503	-.243
	shared values	3.55	.78	-.103	-.421
Moral Elevation	body sensation	2.57	.95	.141	-.558
	emotion	3.36	.79	-.216	.063
	motive	3.51	.76	-.396	.316
	impluse	3.32	.74	-.085	-.256
Self-Control	completing tasks	3.37	.69	.109	-.195
	self-centered	3.72	.69	-.248	-.299
	angry-temperament	3.76	.75	-.364	-.300
Altruistic Behavior	empathy	3.53	.71	-.092	-.102
	help	3.82	.61	-.349	.586
	donation	3.19	.83	-.183	-.070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f1	f1_1	f1_2	f1_3	f1_4	f1_5	f2	f2_1	f2_2	f2_3	f3	f3_1	f3_2	f3_3	f3_4	f4	f4_1	f4_2	f4_3	f5	f5_1	f5_2	f5_3	f5_4	f6	f6_1	f6_2	f6_3								
f1	1.000																																			
f1_1	.725***	1.000																																		
f1_2	.612***	.334***	1.000																																	
f1_3	.706***	.292***	.336***	1.000																																
f1_4	.786***	.472***	.301***	.444***	1.000																															
f1_5	.758***	.375***	.290***	.545***	.575***	1.000																														
f2	.464***	.407***	.172***	.267***	.484***	.292***	1.000																													
f2_1	.359***	.363***	.105**	.183***	.355***	.243**	.725***	1.000																												
f2_2	.434***	.334***	.177***	.279***	.442***	.303**	.887***	.516***	1.000																											
f2_3	.323***	.307***	.121**	.169***	.367***	.154**	.796***	.382***	.533***	1.000																										
f3	.348***	.409***	.183***	.157***	.283***	.167***	.407***	.340***	.337***	.321***	1.000																									
f3_1	.291***	.347***	.199***	.124**	.225***	.106**	.384***	.298***	.324***	.312***	.914***	1.000																								
f3_2	.345***	.404***	.175***	.150***	.288***	.171**	.407***	.374***	.331***	.304***	.919***	.790***	1.000																							
f3_3	.281***	.353***	.080**	.129**	.253***	.144**	.360***	.344***	.284***	.268***	.912***	.755***	.823***	1.000																						
f3_4	.355***	.393***	.214***	.171***	.270***	.186**	.342***	.235***	.296***	.291***	.912***	.802***	.763***	.759***	1.000																					
f4	.387***	.270***	.220***	.293***	.295***	.317***	.405***	.251***	.440***	.252***	.194***	.201***	.163***	.133**	.210***	1.000																				
f4_1	.201***	.123**	.146***	.195***	.088**	.186**	.114**	.054	.145***	.058	.022	.042	-.007	-.033	.073	.706***	1.000																			
f4_2	.404***	.287***	.227***	.291***	.328***	.317***	.451***	.271***	.484***	.295***	.227***	.227***	.194***	.171***	.236***	.929***	.455***	1.000																		
f4_3	.359***	.260***	.176**	.246***	.313***	.290***	.437***	.298***	.462***	.267***	.229***	.229***	.214***	.186***	.210***	.884***	.368***	.851***	1.000																	
f5	.107**	.238***	-.032	-.053	.157***	.017	.363***	.275***	.282***	.330***	.293***	.243***	.311***	.300***	.220***	.030	-.166***	.099**	.127***	1.000																
f5_1	.013	.156***	-.057	-.072	.003	-.025	.135**	.137***	.060	.153***	.224***	.196***	.228***	.212***	.185***	-.023	-.124**	.024	.033	.773***	1.000															
f5_2	.181***	.322***	.079*	-.015	.175***	.027	.329***	.213***	.245***	.342***	.274***	.234***	.291***	.296***	.244***	.038	-.073	.074	.086**	.751***	.489***	1.000														
f5_3	.136**	.203***	-.027	.000	.209***	.054	.420***	.302***	.364***	.346***	.245***	.198***	.267***	.268***	.167***	.082*	-.144***	.150***	.183***	.846***	.485***	.545***	1.000													
f5_4	.021	.082*	-.087*	-.074	.119**	.000	.275***	.223***	.235***	.214***	.186***	.144***	.203***	.234***	.106**	.004	-.179***	.069	.106**	.791***	.451***	.369***	.661***	1.000												
f6	.358***	.311***	.170***	.199***	.340***	.241**	.507***	.338***	.480***	.388***	.272***	.262***	.252***	.231***	.249***	.436***	.171***	.456***	.459***	.267***	.072	.262***	.318***	.204***	1.000											
f6_1	.292***	.274***	.170***	.127***	.266***	.187***	.429***	.298***	.394***	.335***	.233***	.221***	.223***	.202***	.208***	.366***	.151***	.377***	.386***	.232***	.062	.240***	.287***	.157***	.889***	1.000										
f6_2	.376***	.293***	.106**	.244***	.392***	.295**	.532***	.374***	.509***	.386***	.282***	.242***	.286***	.255***	.251***	.347***	.087*	.387***	.386***	.297***	.088**	.261***	.357***	.243***	.850***	.635***	1.000									
f6_3	.221***	.204***	.150***	.128***	.185***	.111**	.292***	.155**	.286***	.242***	.155**	.192***	.105**	.108**	.159***	.390***	.204***	.388***	.385***	.125**	.026	.141***	.130**	.104**	.761***	.527***	.475***	1.000								

* p<0.05, ** p<0.01, *** p<0.001

f1: moral identity, f1_1:self-reality, f1_2:self-truth, f1_3:self-mismatch, f1_4:self-responsibility, f1_5:self-perform, f2: character strengths, f2_1:love, f2_2:kind, f2_3:social-emotion intelligence, f3: family-Strengths, f3_1:communication, f3_2:problem solution, f3_3: ties, f3_4: shared values, f4: moral elevation, f4_1:body sensation, f4_2:emotion, f4_3:motive, f5:self-control, f5-1:impulse, f5_2:completing tasks, f5_3:self centered, f5_4:angry-temperament, f6: altruistic behavior, f6_1:empathy, f6_2:help, f6_3: donation

4.2 측정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6개의 잠재변인들과 잠재변들을 측정하는 총 22개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 및 잠재변인들 간에 -.179~.919까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과 가족건강성은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 이타행동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강점의 하위요인 중 사랑과 도덕적 고양의 신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도덕적 고양의 신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측정변인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χ^2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chi^2=696.423(df=190, N=647)$, $p=.000$ 으로 나와 유의하지 않았으나, 측정모형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915, CFI=.930, RMSEA=.064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it indices of the research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696.423	190	.915	.930	.064
Acceptance	$p>.05$		>.90	>.90	.05~0.8: Good

4.4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Table 5>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모든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433~.974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인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에 타당하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The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tandard Regression Weights	Regression weights	SE	CR
moral identity	reality	1.041	0.634	0.081	12.840***
	truth	0.661	0.433	0.070	9.412***
	self mismatch	0.706	0.547	0.052	13.607***
	self responsibility	1.159	0.791	0.080	14.420***
	perform	1.000	0.679		
character strengths	love	0.875	0.626	0.067	13.110***
	kind	1.073	0.820	0.069	15.623***
	social emotion	1.000	0.643		
family strengths	communication	0.946	0.851	0.029	32.472***
	problem solution	0.983	0.923	0.033	29.811***
	ties	1.020	0.893	0.036	28.592***
	shared values	1.000	0.836		
moral elevation	body sensation	0.658	0.459	0.053	12.319***
	emotion	1.152	0.974	0.041	27.871***
self control	motive	1.000	0.874		
	impluse	0.742	0.531	0.059	12.636***
altruistic behavior	completing tasks	0.754	0.585	0.054	13.918***
	self centered	1.198	0.929	0.069	17.454***
	angry-temperament	1.000	0.710		
	empathy	1.085	0.775	0.075	14.390***
	help	1.005	0.828	0.068	14.703***
	donation	1.000	0.607		

*** $p < .001$

4.5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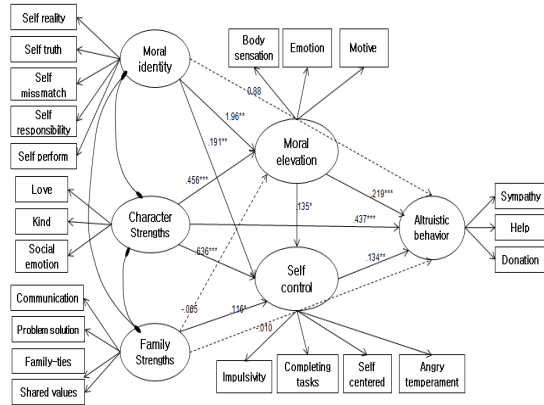
4.5.1 매개모형의 적합도 검증

χ^2 차이검증은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된 경우 비교하기 위한 검증으로 자유도(df)가 1 증가 시 χ^2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즉, χ^2 분포에 따르면 자유도(df)가 1 증가할 경우 χ^2 값이 임계치보다 적게 증가하면 보다 간단한 모형으로 자유도가 1 증가한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한다. χ^2 차이검증을 통해 두 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Table 6>에서 보듯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χ^2 차이가 64.421로 자유도(df) 차이가 3인 상태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χ^2 분포 임계치 7.82보다 큰 값

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에 자유도가 더 적은 모형 즉,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15, CFI=.930, RMSEA=.064로 대안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최종 구조모형은 [Fig. 3] 같다.

<Table 6> Final Model Fit

model	χ^2	df	TLI	CFI	RMSEA
research	698.585	191	.915	.930	.064
competition	763.006	194	.906	.921	.067



[Fig. 3] Final research model

4.5.2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7>에 의하면,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고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며,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왔다. 즉, 도덕적 정체성이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적 고양이 부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정체성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반면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와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강점은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에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며,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도 직접·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도덕적 고양

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적 고양이 부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에서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반면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Final research model Path coefficient

Dependent Variable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ral elevation	moral identity → moral elevation	0.196*		0.196*
	Character Strengths → moral elevation	0.456*		0.456*
	family Strengths → moral elevation	-0.065		-0.065
self-control	moral identity →self-control	0.191*	0.026*	0.218*
	Character Strengths →self-control	0.636**	0.062**	0.574**
	family Strengths →self-control	0.116*	0.009*	0.125*
	moral elevation →self-control	0.135*		0.135*
altruistic behavior	moral identity → altruistic behavior	0.088	0.014*	0.101
	Character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0.437*	0.177**	0.614*
	family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0.010	0.003**	-0.008
	moral elevation → altruistic behavior	0.219**	0.018**	0.201**
	self-control → altruistic behavior	0.134*		0.134*

* p<0.05, ** p<0.01

4.5.3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결과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척도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된 결과,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chi^2(df=398, N=647)=970.389, TLI=.909, CFI=.922, RMSEA=.047$). 또한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가 척도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아 ($\Delta\chi^2(\Delta df=12, N=647)=13.063, \Delta TLI .002, \Delta CFI .001, \Delta RMSEA .000$)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이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1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2개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경로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의 차이($\Delta\chi^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그 경로의 계수의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9>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Delta\chi^2(\Delta df=12, N=647)=7.122, p<.01$), 그 외 모든 경로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Fit indicates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Scale equality constraint model	970.389	398	< .001	.909	.922	.047
group model equality constraint model	983.452	410	< .001	.911	.921	.047

<Table 9>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e model and path model estimated

path	df variation	χ^2 variation	TLI variation
moral identity → moral elevation	1	1.517	<.001
Character Strengths → moral elevation	1	7.122**	.001
family strengths → moral elevation	1	2.991	<.001
moral identity → self- control	1	1.492	<.001
Character Strengths → self- control	1	2.535	<.001
family strengths → self- control	1	.107	<.001
moral elevation → self- control	1	.048	<.001
moral identity → altruistic behavior	1	.701	<.001
Character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1	.713	<.001
family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1	1.260	<.001
moral elevation → altruistic behavior	1	.495	<.001
self- control → altruistic behavior	1	.004	<.001
all paths	12	15.097	-.002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및 가족건강성이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대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고양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행동 및 이타행동을 하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변화하도록 하는 도덕적 정체감이 타인에 대한 공감 및 도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3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도덕적 정체성은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나타냈다.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지 및 정서, 행동을 유능히 조절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에 영향을 준다는 [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도덕적 정체성은 이타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써 이타행동이 일어나기 위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적 긍정 정서인 고양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으로 나타나 이타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격강점은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이타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인 사회지능이 높으면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행동을 수행한다는 [4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추어보면, 사회·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민감히 반응하며 대인간의 관계형성을 유능하게 하며, 도움행동이나 이타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행동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성격강점은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이라는 도덕적 정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성격강점 인 간의 하위요인인 사랑, 친절, 사회·정서지능이 도덕적

정서와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4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격강점이 높은 개인은 성격강점의 긍정적 특성을 통해 자기통제력에도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사회성과 정서함양이 행동에 대해 이성적 통제를 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행동을 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의 인간에 덕목만을 가지고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살펴해보았으나 추후에는 인간애를 비롯한 다른 덕목들이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여러 성격강점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실천의 기회를 보다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성격강점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도덕적 고양이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격강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개인 내적인 면과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케 한다는 [4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덕적 긍정 정서인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이 도덕적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의 대학생들에게 이타행동을 높이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 중요변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학교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도덕적 정서교육을 통해서 이타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높여 이타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성격강점과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이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도덕적 고양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통제력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4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가족건강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기통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긍정적인 성향의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건강성은 자기통제력을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 경우 애정과 유대감,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높아지며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고양을 지닌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 및 이타행동을 행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28], 도덕적 고양은 자신이 핵심가치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타인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켜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와 함께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고양은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고양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크며, 자기통제력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활성화하며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자로 자기통제력이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2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결국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도덕적 성격에 해당하는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안과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덕정서를 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섯째,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과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 남·여 대학생 집단 간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4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타인과의 감정이입과 감정표현을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며,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자신의 감정의 인식과 표현, 정서활용 감정이입 등을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사회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추후,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과 도덕적 성격인 자기통제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 외 더 다양한 자아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구조적 관계에서의 차이를 남·여 성별 집단 외에 전공별 대학생집단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도 제기된다. 이타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이타행동의 성격과 본질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지도 전략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modified by research based on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REFERENCES

- [1] Chung Aang Daily News: Edgar, M, Individuals can't leave the community, p.15, 2001.
- [2] J. R. Ko, "The relationship analysis of young children's community consciousness,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9, No. 1, pp. 97-125, 2014.
- [3] Myers, D. G,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56-67, 2000.
- [4] Rimland, B. B, "The altruism paradox. *Psychological*

- Reports”, Vol. 51, No. 2, pp. 521-522, 1982.
- [5] Pipher, M, “Saving the saves of adolescent Authentic”. Seoul: MunHakDongne, 1999.
- [6] McAdams, D.P.,Hart, Maruna, S, The anatomy of generativity. In D.P. McAdams, E. de St. Aubin(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APA Press, 1998.
- [7] M. J. Song,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gisa, 1995.
- [8] Batson, C.D,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o.1, pp.282-316, 1998.
- [9] Shaffer, D. 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ustralia”: Belmont, CA: Wadsworth, 2000.
- [10] K. A. Min, “Relationship with empathy, guilt, gratitude, moral judgment and altruistic behavior”. MA.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14.
- [11] J. Y. Lee, “Children’s differences in altruistic behavior, affect toward Handicap and contact-willingness according to integrated education experience and level of knowledge about Handicap”. MA. dissertation, Kemyung University. 2003.
- [12] M. Y. Joo. “Effects of CEP on care and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2014.
- [13] Blasi, Moral Identity: Its role in moral functioning, W. Kurtines & J.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4.
- [14] Berkowitz,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W. Damon, “Bring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Stanford, Hoover Press. 2002.
- [15] Seligman, MEP,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2
- [16] Peterson, C., & Seligman, M. E. P,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 [17] Y. J. Rim,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a strengths-based positive psychotherapy on happiness”. Ph. 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10.
- [18] S. W. Lee,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of Laughter Recreation Convergence Educa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37-49, 2015.
- [19] Stinnett, N., & DeFrain, J, “The healthy family: Is It possible?” In M.J.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53-74. London: Academic Press. 1989.
- [20] Fabes, R.A, Eisenberg, N. & Miller, P.A “Masternal cor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639-348, 1990.
- [21] M. S. Oh, “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 [22] Schnall, S., Roper, J., & Fessler, M. T. “Elevation leads to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Vol. No.21, 3, pp. 315-320, 2010.
- [23] H. S. Shin, “The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MA. dissertation, Kemyung University. 2011.
- [24] M. O. Seo, “The pathways to moral behavior in an undergraduates: Based on the Rest’s Four component mod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45, No. 3, pp. 25-51, 2007.
- [25] Rest, F. C, Morality. In J,H, Flavell,, E. M. Markma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ly & Sons, 1983
- [26] J.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on life style i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f college life adaptation”, MA.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2.
- [27] H. S. Jang, “Female Psychology”. Seoul: Pakyoungsa, 2002.
- [28] Eisenberg, N,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1986.
- [29] H. J. Won, “Study on the moral self and the moral

action choice". MA.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9.

[30] S. M. Kewon,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2009.

[31] Y. 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welfare program for strengthening family life-special reference to family",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91

[32] J. H. Choi,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on impulsiveness and self-control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A.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of Edu, 2005.

[33] Davidson, J, "Engagement with beauty: Appreciating natural, altruistic, and moral beauty". Journal of Psychology. Vol. 142, No.3, pp.303-329, 2008.

[34] M.A. Kim, "Effect of moral emotion on helping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as mediating helping behavior, MA. dissertation", Youngnam University. 2010

[35] H. S. Jung, "study on the self-control and the delinquency opportunity of the delinquency adolescents and the normal adolescents", MA.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1995

[36] H. Y. Park, "Perceived maternal discipline style and self-control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MA.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2004

[37] Bal-Tal, D., Raviv, A,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50, pp. 1235-1238, 1979

[38] S. J. Lee, "The effects of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altruism and well-being", Ph. D, Aju University. 2014

[39] Schwartz, S. H,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New York: Academic Press, 2000.

[40] Eisenberg, N,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pp. 665-697, 2000.

[41] Roberts, W., & Strayer, J.,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67, No. 2, pp. 449-470, 1995.

[42] Tangney, J. P.,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2, No. 2, pp. 271-324, 2004.

[43] S. H. Hong, "The relationship among peer support,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in high",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5, No. 3, pp. 79-91, 2013.

[44] K.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university students", Ph. D. Dankuk University. 2008

장 용 희(Chang, Yong Hee)



- 2015년 7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
- 2015년 현재 :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도덕정서
- E-Mail : maryboni@hanmail.net

이 재 신(Lee, Jae Shin)



- 1991년 1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
- 1982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창의성, 영재교육
- E-Mail : jslee@chungbuk.ac.kr